

# 치안정책리뷰

##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송병일 편집인 김영수 전화 041-968-2691 FAX 041-968-2989

### 연구소 소식

연구소 소식 및 연구관 동정

### 권 두 언

자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전명숙

범죄예측 기술 어디까지 왔나?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윤상연

### 연구특집

토어(Tor) 기반 다크넷(Darknet)관련 범죄 동향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신지호

중국의 유엔 평화유지경찰 참여

서울청 강북경찰서 행정관  
박태희

### 현장의 소리

치안 현장 속으로 (인터뷰)

서울청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장  
이 석

**연구소 소식**

**◆ 치안정책연구소 동정**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송병일)은 YOU-TUBE에 자체 제작한 동영상 게시하여, 치안정책연구소의 활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 솔인폴(Solinpol) 블로그 신설 (solinpol.com)**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송병일)에서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Total Solutions in Policing 의 약자에서 따온 Solinpol로 네이밍 한 블로그를 신설하였다. 블로그에는 치안정책연구소의 최신 연구 동향과 다양한 소식을 실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치안정책연구소의 대표적인 홍보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일반직(임기제) 연구관 신규 임용**

지난 4월 1일 경찰대학에서 박진우 학장 주재로 신규 임용자들에게 대한 임용식이 개최되었다.



국제경찰지식센터 어학분야(영미권, 불어권) 2명과 범죄분석실 3명 총 5명을 선발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춰 해외 경찰의 제도 비교와 과학치안을 구현하는 심층적인 연구 등 치안정책연구소가 경찰 연구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향후 외국 경찰제도 및 치안관련 법령 및 판례 비

교 연구와 중요 미제사건의 분석, 지역별 범죄 환경 분석, 치안 빅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측 분야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 치안정책연구소는 학술 등재지 <치안정책연구> 제32권 1호를 3차에 걸친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12편의 최종 게재 논문을 확정하여 발간하였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를 통해 볼 수 있다.**

(원본 PDF파일로 게시)

연번	논문 제목
1	자치경찰제 도입모델에 관한 검토
2	지역사회 경찰활동 시대에 요구되는 경찰의 자질: 신입 경찰공무원 모집과정에서의 활용방안
3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을 위한 과제
4	경찰관 인권의식에 대한 영향 요인
5	국제인권기준에 비춰본 한국의 집회·시위 대응
6	신원미상 탈북민의 법치외학적 연령감정 체계에 관한 연구
7	개문사고에 대한 판례분석
8	난폭운전 관련 신문기사 내용 분석
9	아동포르노그래피 소지죄 처벌에 관한 검토
10	스마트 폴리싱의 한국적 적용에 대한 연구
11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정책결정과정 분석 연구
12	경찰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범죄안전감에 미치는 영향

**◆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범죄위험대응을 위한 신규 R&D 착수하였다. 치안정책연구소가 참여하는 「위험상황 초기 인지를 위한 ICT 기반의 범죄 위험도 예측 및 대응 기술 개발」 과제 연구개발 개발 중으로, 2018~2021년(45개월)까지 총 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청(치안정책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고려대학교, (주)아이와즈, 씨이엔코퍼레이션(주) 등이 참여하는 이 과제는 ‘어금니 아빠’ 같은 주요 범죄의 초기 상황에서의 경찰의 여러 정보를 종합해 분석하고 위험상황을 초기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2호 논문모집 공고

□ 학술등재지 논문모집

- 모집기간: 2018. 6. 14.~8. 15(9주).
- ※ 2018년 9월말 발간예정

□ 응모자격

- 국내·외 대학강사 이상, 연구소 연구원, 대학원생, 전·현직 경찰관 등
- 논문분야  
치안정책, 범죄수사, 치안행정, 생활 안전, 사회안정, 교통, 안보대책, 치안과학 등 경찰 관련 분야
- 논문분량  
A4 기준 20매 또는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글자크기 함초롱바탕 10.5포인트, 각주 9포인트)
- ※ 투고논문은 다른 매체 또는 지면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함

□ 문의처

- 조금희 연구관 (041-968-2492)
- ☆ 많은 응모 바랍니다\*\*

「치안정책 리뷰」 원고 모집 공고

본 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고모집 안내

치안정책리뷰에서는 다양한 치안관련 원고를 모집합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9.15일까지 접수)

□ 보내실 내용

- 치안관련 논문 요약본
- 치안정책관련 칼럼
- 일선 현장의 이야기
- 해외 경찰관련 자료 및 경찰활동 사례
- 기타 치안정책관련 동향 및 의견

□ 보내실곳

- e-mail : cisjy@police.go.kr
- 메신저 등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장 일 식 연구관 (041-968-2692)

□ 치안정책연구리뷰 편집팀

- 강용길 연구관, 장일식 연구관



## 자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전 명 숙

### <우리나라 자살문제 현황>

우리나라는 연간 13,092명, 하루에도 36명, 매 40분마다 한명이 자살로 사망한다.(통계청,2016) 교통사고 사망자의 2.5배 수준이고, 13년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삶이 안정기에 도달하는 지점인 고(高)연령에서 자살위험이 더 높고, 질병 등 사망 위험이 높지 않은 20~30대가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자살이라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6.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건강보험공단, 2014) 뿐만 아니라 가족을 자살로 잃은 유가족의 경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및 상실감 뿐 아니라 망자의 죽음에 대한 자책과 분노, 수치, 원망 등의 감정적 고통과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어, 우울 및 의욕저하(75.0%), 우울증(41.7%) 등 정신적인 문제와 더불어 호흡곤란 및 두근거림(59.7%) 등의 신체증상과 질병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자살유가족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5) 뿐만 아니라 자살유가족들 중에서 자살을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실제 자살위험이 높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야말로 자살로 인한 사회적 피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자살자 규모를 감안할 때, 자살유가족은 매년 최소 7만명, 과거 10년간 적어도 70만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 <자살률 감소의 성공사례>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은 그간 정부와 민간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인해 2011년 인구 10만명당 31.7명에 달했던 자살률이 2016년에는 25.6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의 자살률 감소를 위한 노력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자살”은 사회문제라기보다 개인의 선택이며,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던 것이 그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대적인 심리부검과 원인분석을 토대로 국가 자살예방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했던 핀란드는 자살률을 절반이하로 줄였고(90년 30.2명 -> 14년 14.1명), 우리와 여러 여건이 비슷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자살률을 30%나 감소시킨 경험이 있다.(03년 27.0명 -> 15년 18.9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인 노력과 개입으로 5년간 자살률을 절반이하로 줄인 지자체가 얼마든지 있다. 여러 나라들과 지역단위의 경험을 미루어 보더라도, 자살은 주변의 관심과 정책적 개입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이다.

### <우리는 어떻게 자살을 줄일 것인가>

조금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난 1월 우리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률 17.0명 달성을 목표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가 및 지역별 자살문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과거 5년간 발생한 7만건의 자살사례를 전수 조사한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소속의 전문가 30여명이 전국 250여개 경찰서를 일일이 방문하여 변사기록을 열람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자살자의 연령이나 성별, 자살원인 및 수단, 빈번하게 자살이 발생하는 장소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의 자살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자살 위험신호를 사전에 감지하여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자살예방게이트키퍼 교육도 매년 100만명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자살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하고,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발굴 및 상담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과 지원방안 마련, 응급실 등을 기반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 노동자 및 실직자에 대한 자살예방과 연령에 적합한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포함이 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리실 산하에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보건복지부에는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자살예방정책과도 신설하였다. 종교계, 방송 및 언론계, 전문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6개 정부부처(청)와 34개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생명존중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였다.('18.5.23)

#### <자살예방을 위한 과제 >

이처럼 자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역할과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의 노력만으로 충분치 않다. 민간기관들과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고,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찰관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과 접촉할 기회가 많을 뿐 아니라, 자살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살사건 현장과 당사자의 삶에 가장 먼저 또 가장 가까이 접근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한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또 다른 자살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자살유가족이나 자살시도자를 직접 대면할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경찰관이 업무로 분주한 중에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살의 재시도자와 자살유가족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안내해 주거나, 자살시도자나 자살위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해 준다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극단적인 선택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자살사건이 발

생했을 때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자살관련 정보를 언론에 공유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 자살보도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모방 자살을 예방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고를 막고 보다 많은 사람을 극단적인 선택으로부터 지켜내는데도 도움을 주시도록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PSI](#)

# 범죄예측 기술 어디까지 왔나?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윤상연

## 범죄예측, 가능할까?

**범죄** 예측 하면 영화 ‘마이내리티 리포트’를 빼놓을 수 없다. 2054년 미래를 배경으로 이 영화에는 특수경찰인 프리크라임(Pre-crime)이 범죄발생을 예측하여 예비범죄자(?)들을 체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설정이 등장한다. 영화가 나온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프리크라임은 미래경찰의 대표적인 모델로 회자되고 있다. 영화처럼 범죄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현실에서도 가능한 일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특정인의 범죄발생 장소와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개인 수준에서 범죄의 발생 수준을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는 개인의 범죄 성향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평가하는 것일 뿐,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흔히 가정하는 타고난 범죄자에게조차 여전히 물음표는 남는다. “언제, 어디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데?”

영화에 등장하는 범죄예측 시스템의 핵심이 비과학의 대표적인 예지자라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자뿐일까?

다만 영화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법들이 치안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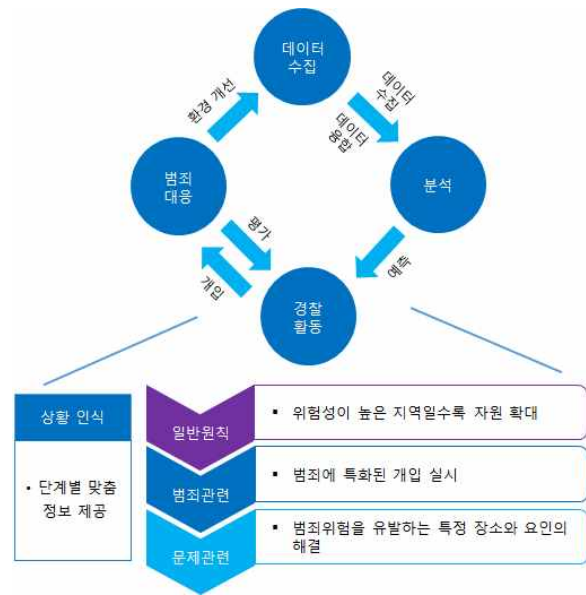
## 범죄예측의 개념과 외국 사례

전 세계적으로 경찰의 범죄대응 활동이 사후적인 범죄수사 중심에서 사전적 예방활동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 경찰도 예방적 경찰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은 범죄예측이 그 기초가 되고 있다. RAND 보고서(2013)에 따르면, 예측적 경찰활동

(predictive policing)은 “통계적 예측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과거의 범죄를 해결하고, 경찰의 개입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기술, 특히 양적인 기술”을 의미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측적 경찰활동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 발생을 예측하고 범죄 위험이 높은 장소, 요인에 대응한다. 예측적 경찰활동은 치안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이 기초가 되며, 지역 단위의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 등 범죄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림 1> 예측적 경찰활동의 프로세스



출처: RAND Report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사건 및 범죄자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외국의 예측 시스템은 과거의 범죄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정보,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범죄 예측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개인정보 등 거시·미시적 요인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이 높기 때문에 범죄예측의 정확성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그림2> 예측 치안의 유형별 예측적 경찰활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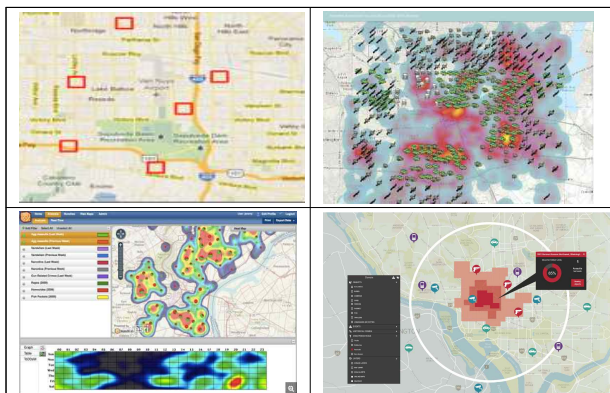
출처: 프리미엄 조선

외국의 범죄예측 시스템에는 인적 기반의 예측시스템도 다수 존재한다. 주로 범죄이력이 있는 수감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에서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 2년 내 재범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에도 법무부 주관으로 범죄자 데이터를 이용한 재범 가능성 예측 프로그램(OASys)을 운영하고 있고, 런던 경시청에서는 조직범죄자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여 범죄 예방에 활용한다. 미국 시카고 경찰청에서는 사회관계망분석(SNA)을 통해서 폭력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도 인적 기반의 범죄예측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활용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특정인(전과자, 수감자)을 대상으로 하는 재범 예측 시스템보다는 장소 기반 예측 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범죄율이 높은 미국 대도시 경찰서에서 주로 운용되고 있는 범죄예측 시스템들은 IBM, Microsoft, Motorola 등 유수의 정보기술 업체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림 3> 외국의 범죄예측 시스템 사례



주: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PredPol(Predictive Policing), Crime Insight and Prevention, PCA(Predictive Crime Analytics, HunchLab)

외국의 범죄예측 시스템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주로 대도시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의 범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범죄예측의 필요성도 높지만, 범죄발생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예측결과가 정확해지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범죄문제로 골치를 앓던 도시들이 예측 시스템 도입하여 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었다.

둘째는 범죄예측에 사용되는 변인들이 시스템 또는 도시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LA처럼 우범지역과 아닌 곳이 뚜렷한 도시는 과거 범죄발생 이력만으로 범죄를 예측하는 PredPol을 사용한다. 반면 결정적인 유발요인이 없는(즉, 범죄유발요인이 다양한) 지역에서는 HunchLab과 같은 시스템은 범죄발생 자료 이외에도 기상정보, 이벤트 정보, 각종 지리적인 정보 등 가용한 최대한의 외적 정보를 이용하여 범죄를 예측하고 있다.

### 범죄예측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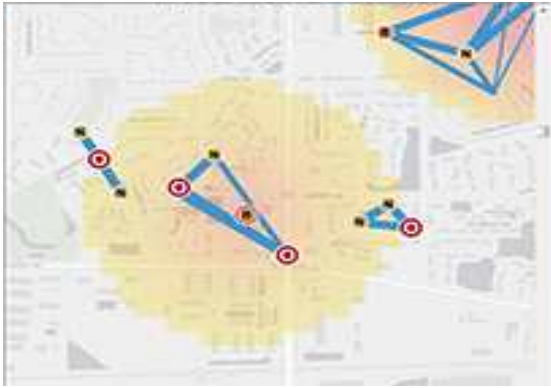
범죄의 발생을 예측하여 치안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보다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나 피해자에 대한 확률적 정보가 필요하다. 범죄예측의 고도화를 위한 첫걸음은 범죄환경 요인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다. 특정 장소와 시간의 범죄위험 수준을 상대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범죄위험도는 범죄예측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범죄의 예측은 기술적으로 범죄유발 요인들의 효과를 시간과 공간적으로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다양한 범죄유발 요인들의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시공간 분석(Spatio-temporal Analysis) 기법이 사용되는데, 이 기법은 시계열모형(Time Series Model)과 공간모형(Space Model)을 결합하여 범죄를 예측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세분화된 결과를 제공해준다.

범죄예측을 위한 시공간 분석 방법에는 인근 반복모형과 위험영역 모형이 있다. 인근반복모형(Near Repeat Model)은 범죄가 어떤 장소에서 한

변 발생하면 그 인근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그 원리로 한다. 범죄 유형, 발생 시간·장소 등 범죄발생 정보 이외의 외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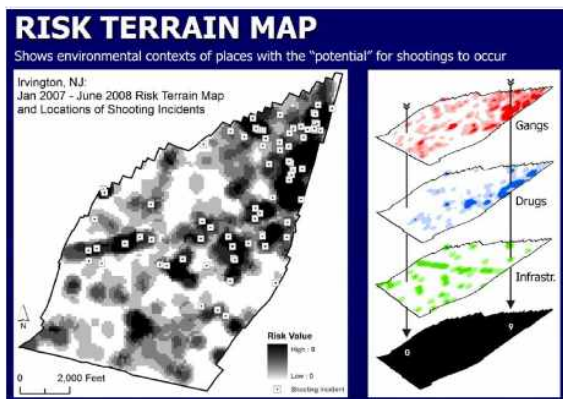
<그림 4> 인근반복모형에 의한 범죄피해 예측



출처: Esri 홈페이지

반면 위험영역모형(Risk Terrain Model)의 경우 범죄발생 사실 자체가 아니라 범죄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 즉 특정 공간의 물리·사회·행동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범죄를 유발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험요인들을 중첩적으로 지도상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 모형에서는 개별 예측요인들의 예측력을 검증한 다음, 각 요인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모델을 도출해내게 된다. 원인적인 관점에서 범죄를 예측하기 때문에 예방활동과 연계하기에 유리하다.

<그림 5> 위험영역모형에 의한 총기사고 발생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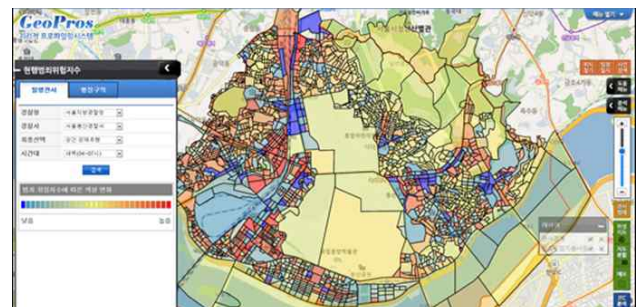
출처: Rutgers Center on Public Security

### 현행 범죄예측 시스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예측은 외국에서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경찰에서도 이미 범죄예측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이하 GeoPros)은 2009년, 범죄분석요원들이 연쇄범죄에 대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하거나 용의자를 추출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그러나 범죄위험지수, Hot Spot 등의 정보제공 기능을 갖추고 있어 생활 안전 기능에서 순찰장소 또는 경로 선정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GeoPros는 전국을 36만 7천개 권역으로 세분화한 소위 '치안블록'을 설정, 범죄유형·지역특성 별로 차별적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범죄위험도를 제공한다. 예측변인이 유동인구, 인구연령대, 소득수준, 토지가격, 기상정보, CCTV 정보, 범죄발생 현황, 전과자수, 경찰관서까지 거리 등 42종에 달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획기적인 범죄예측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 GeoPros의 범죄위험도지수 예시



출처: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ver.2.0)

수사국(KICS 운영계)에서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클루'(CLUE: Crime Layout Understanding Engine)라고 하는 범죄분석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 경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범죄발생 데이터와 52종의 공공데이터를 결합한 범죄발생 예측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한층 발전된 범죄예측 시스템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범죄예측 기술은 경찰 내부에서만 아니라 사회적인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 불안요인과 치안수요가 증가하면서 각종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고자 하는 시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예측 분야의 연구개발(R&D) 과제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치안 데이터 활용 기술의 발전은 물론 경찰 내부의 경험도 축적될 것이다. 향후 경찰의 범죄예측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범죄예측의 한계와 개선 방안

현재 경찰에서 운용 중인 범죄예측 시스템은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완의 작품이다. 범죄예측 시스템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형사사법 절차전자화촉진법’ 등 법제도적 제약이 많아 연구개발부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향후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라도 현재 예측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아래는 현재의 범죄예측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열거한 것이지만 특정 시스템에 국한되지 않은 공통적인 문제이므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① 데이터 수집 단위의 편차

예측요인의 지역 범위와 치안블록의 범위가 상이하다. 인구통계적 변인 등 거시적 변인의 적용범위는 시군구, 읍면동 등 치안블록 범위에 비해 크기 때문에 지역 경찰의 범죄예측과 예방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의 제공이 어렵다.

#### ② 업데이트 주기의 문제

데이터의 업데이트 주기가 느리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변화하는 상황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③ 지역특성별 편차

전국적인 범위의 가용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세부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경찰관들이 실제 체감한 위험도와 상이하다.

#### ④ 알고리즘의 한계

변인들 간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변인을 많이 포함하더라도 예측의 정확성, 설명량이 높지 않다(ex. CCTV 설치대수, 유동인구).

이상의 한계들로 인해서 현재 범죄예측시스템의 예측 결과는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정확성이 확

보되지 않은 결과물을 범죄예방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범죄예측의 정확성, 그리고 효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범죄예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양질의 데이터 확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례와 연구성과 등을 보았을 때 일반적인 공공데이터 등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범죄와의 관련성이 낮아서 예측력이 낮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확한 범죄예측을 위해서는 유동인구 등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 자체적으로 관련 데이터 수집과 관리 등을 통해서 범죄예측의 정확성과 효과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CPO(Crime Prevention Officer)를 활용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치안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예방과 연계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 범죄예측에 있어서 경찰이 소비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로서 역할 변화를 꾀할 시기이다.

### 범죄예측의 미래

범죄예측의 작동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범죄예측 기술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데이터 과학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범죄예측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 확실하다.

아직은 우리가 기대하는 정확성도, 효과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지만 범죄예측 영역에 투입되는 경찰 내외부의 자원을 고려했을 때 언젠가 우리가 원하는, 어쩌면 그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수요를 충족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 과학이기 때문이다. 과학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언젠가는 그 방법을 찾는다. **PSI**

# 토어(Tor) 기반 다크넷(Darknet) 관련 범죄 동향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신지호

## 들어가며

**현** 대사회를 주도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이 정보통신기술 기반 환경을 가속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인터넷은 막대하게 발생하는 정보의 유통창구로서 활용도가 가장 높다. 통신망과 통신망을 연결한 망의 집합으로 구성된 인터넷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초연결의 핵심 기술이 되었고, 통신속도의 고속화, 생산정보의 대량화 등으로 인터넷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는 범죄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범죄가 날로 증가하였고 수법은 정교해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범죄 정보 수집도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에 저장되어 있는 ‘단편적인 대량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범죄 수사 및 예방 활동에 필요한 ‘정보’로 가공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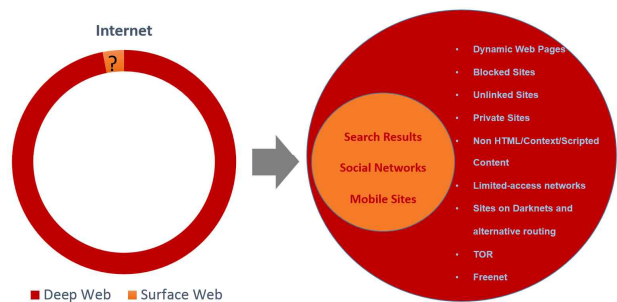
이러한 인터넷상의 정보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되기 위해 웹(Web)으로 표현되는데, 웹은 크게 표면웹(Surface Web)과 이 이외의 특정 영역으로 구분되는 딥웹(Deep Web)으로 나누어진다. 표면웹은 우리가 흔히 이용하고 있는 영역으로,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일반적인 웹 환경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딥웹은 특정 인가자만 접근이 가능한 영역이며 이중 일부를 차지하는 다크웹(Darkweb)은 특정 네트워크를 이용한 불법성을 지닌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딥웹의 한 종류로 분류되는 다크넷의 개념을 소개하고 토어(Tor, The Onion Router) 네트워크에 기반한 다크웹의 구동 원리와 이와 관련된 범죄의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딥웹(Deep Web)과 다크웹(Dark Web)

딥웹을 다루었던 많은 언론에서 딥웹을 표면웹과 비

교하기 위해 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 중 수면 위의 부분을 표면웹으로, 물속의 잠겨있는 부분을 딥웹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인터넷 상 표면웹이 차지하는 영역의 크기를 전체 웹 데이터 중 1%가 채 되지 않는 크기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딥웹의 영역을 매우 거대한 영역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 딥웹의 크기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기록은 없다. 표면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Google), 야후(Yahoo), Bing, 유튜브(Youtube), 레딧(Reddit)과 같이 인터넷 링크를 통해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웹페이지와 그 안에 담겨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딥웹은 개인이메일이나 클라우드서비스, 보호받고 있는 공공데이터 레코드 등 특정 인가 또는 허가권한을 취득해야 만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데이터 또는 웹페이지를 의미한다. 그간 언론에서 알려진 범죄 관련 인터넷 공간을 딥웹이라 표현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성을 지닌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인터넷 웹상에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 또는 영역을 통칭하는 정도로만 이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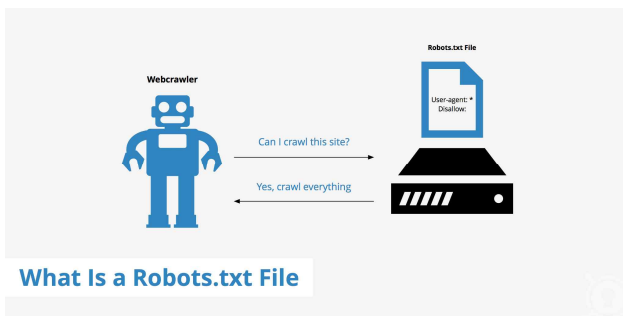
<그림 1> 표면웹(Surface Web)과 딥웹(Deep Web)



표면웹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사용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해당정보의 제목과 요약, 그리고 실제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한 링크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링크를 생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인덱싱(indexing) 이라 한다. 인덱싱은 주로 구글, 야후 등 검색엔진을 소유한

기업에서 수행한다. 인터넷에 연결된 공개된 웹 페이지를 일일이 로딩하여 담겨있는 정보를 긁어모으는 ‘크롤링(crawling)’ 작업을 통해 해당 정보의 색인과 링크 생성을 처리하고, 또 향후 업데이트 된 내역을 새롭게 반영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구글과 같은 포털의 검색엔진은 각종 웹서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문서, 이미지, 블로그 등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웹서버 루트에 존재하는 robots.txt 파일의 공개 수준 설정에 따라 인덱싱을 처리한다.

<그림 2> 웹 크롤러와 robots.txt의 작동방식



출처 : keycdn.com

이에 반해 딥웹은 구글, 야후 등 검색엔진에 의해 검색되지 않는, 즉 인덱싱 되지 않은 웹페이지, 문서, 이미지 등의 데이터 또는 그 영역을 의미한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웹메일을 예로 들어보면, 사용자는 메일을 확인하기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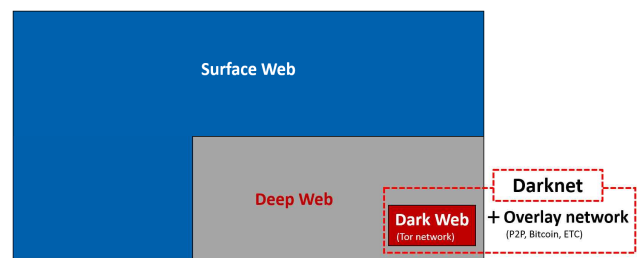
- ① 검색엔진을 통해 웹메일 이름(네이버/다음 등) 검색하여 링크확인
- ② 웹메일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 링크 클릭
- ③ 아이디/패스워드 입력하여 로그인 처리 후 성  
공시 메일목록 페이지 로딩
- ④ 메일 내용 확인

위 과정에서 사용자는 표면웹과 딥웹 영역 모두 경험하게 되는데, ①,②를 표면웹, ③,④를 딥웹으로 볼 수 있다. 아이디를 입력하는 웹페이지까지는 어느 누구라도 진입 가능한 공개된 페이지이며 검색엔진의 인덱싱에 의해서 링크가 생성되어 있다. 사용자의 메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급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로그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로그인 성공 이후를 딥웹으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딥웹 중 불법성 정보를 다루는 영역을 ‘다크웹(Dark Web)’이라 표현하며, 이를 서비스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총칭으로 ‘다크넷(Darknet)’이라는 용어를 이용한다. 다크넷은 다크웹과 일반 네트워크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오버레이 네트워크(Overlay Network)를 이용하여 구현된다. 이를 정리하여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3 참조)

<그림 3> 표면웹(Surface Web)과 다크웹(Dark Web)



다크웹은 딥웹의 한 종류로 분류되며 딥웹 영역 중 불법성 정보를 유통하거나 마약, 총기 등 사이버 금제품의 유통을 위한 창구로 알려져 있다. 다크웹은 전체 인터넷 중 0.03%에 불과하며 딥웹과 비교해도 극히 미미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나, 앞서 논한 대로 정확히 보고된 바는 없다. 토어(Tor)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크웹 최대 호스팅 서비스인 ‘프리덤 호스팅(Freedom Hosting)’이 성행했던 시절에도 토어를 통한 다크웹 사이트는 약 2만개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 이렇게 작은 영역임에도 발생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은 상당하다.

다크웹은 탈취된 개인정보 유통, 마약 및 총기 유통, 아동음란물 유통 등 주로 불법정보의 유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이와 같은 불법정보 유통의 온상이 된 이유는 ‘익명성(anonymity)’이 제공되는 특정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다크웹을 구성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토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 토어(Tor)의 구동원리

대표적인 다크웹 네트워크인 토어는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성을 지니지 않는다. 토어 프로젝트는 스스로를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보장하며 검열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유 소프트웨어’로 표현하고 있다. 토어는 2002년 미 해군연구소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사용자를 토어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서비스한다. 토어 네트워크는 외형상 표면웹과 동일한 일종의 축소판으로 이해되고 있다. 토어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암호화 브라우저를 이용하는데, 이는 익명성 제공을 목표로 한다. 토어는 비영리단체인 ‘토어 프로젝트 (Tor Project)’에 의해서 현재까지도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토어는 익명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이버 범죄자들에게는 매우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로데이 공격과 같은 취약점 공격용 악성코드 및 마약, 무기, 아동포르노와 같은 불법 자료의 유통을 원하는 범죄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공간으로 이용된다. 토어 네트워크 내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모두 익명성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다크웹’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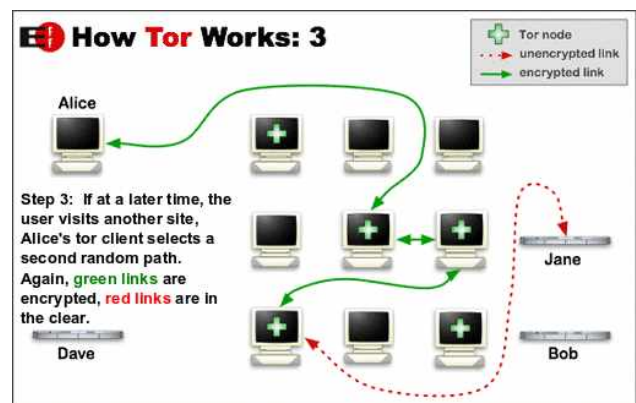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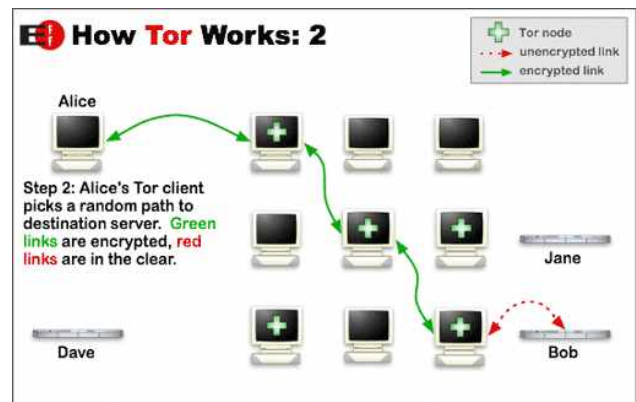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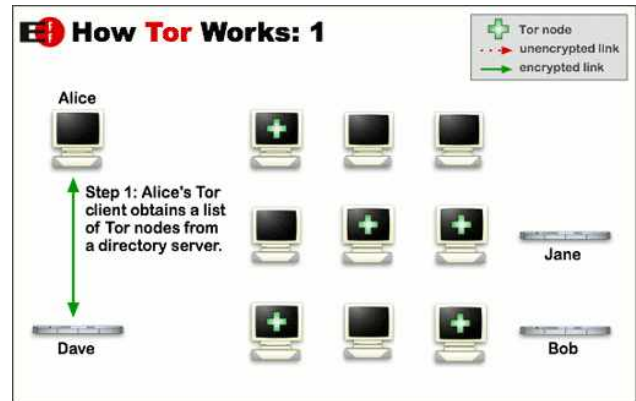
토어는 기본적으로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서비스에 기반한 다차원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VPN은 기본적으로 단일 경로를 이용하지만 토어 네트워크는 최소 3개 이상의 VPN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형태이다. 토어 프로젝트는 토어의 네트워크의 형태가 양파와 같다 하여 ‘The Onion Router’로 명명하였다 설명하고 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 ① 토어 브라우저는 토어 네트워크의 디렉토리 서버로부터 접속 가능한 토어 노드(node) 리스트를 갱신하여 보관하고 있다.
- ② 노드 리스트 중 한 노드를 엔트리 노드로 선택한 후 암호화 통신을 수행한다.
- ③ 동일한 방식으로 엔트리 노드와의 통신을 제외한 2번의 릴레이 통신을 수행한다.
- ④ 최종 출구 노드에서 목적지 서버로 이동하여 통신을 종료한다.

각 노드들 사이에서 암호화통신이 수행되며 출구 노드에서는 암호화 통신이 제외된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4 참조)

<그림 4> 토어의 작동 방식



출처 : Torproject.org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직접 통신하는 일반 네트워크 환경과는 다르게, 가운데에 몇 대의 컴퓨터를 더 거침으로 인해 목적지 컴퓨터에는 바로 전 컴퓨터의 흔적만 확인이 가능하며, 최초 접속자를 판별할 수 없다. 토어 브라우저의 기본설정에 의해 최소 3번의 릴레이 과정을 거친 후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통신 과정을 더 추가할 수도 있다.

또한 브라우저에서 설정된 일정 시간(기본 10분)이 지날 경우 각 노드 정보를 새롭게 업데이트하며 이를 기반으로 경로를 재설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적적 곤란하다. 통신과정 중 전달중인 네트워크 패킷(packet)이 유출된다 하더라도 노드 간에는 암호화 통신을 하므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다크넷과 암호화폐

다크넷에서의 불법정보 및 금제품을 거래하기 위한 교환의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다크넷 환경에서의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유형을 분류한 바 있다. 여기에는 마약·총기거래 범죄, 불법컨텐츠 범죄, 자금세탁 범죄 등 다크넷에서 발생하는 불법 정보의 거래가 대표적이다. 이중에서도 최초의 암호화폐로 알려진 비트코인이 불법정보 및 금제품 구매 시 지불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기타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쉬와 같은 알트코인도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크웹에서 불법정보 및 금제품 유통의 지불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이유는 암호화폐가 가진 몇 가지 특성들 때문이다. 첫째, 암호화폐는 익명성을 추구한다. 암호화폐의 거래를 위한 주소는 보통 해시값으로 표시되고 개인정보 없이 누구나 쉽게 주소를 생성할 수 있으며, 중앙화 된 관리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 지갑이 누구 것인지 확인할 대상조차 없다. 다만, 암호화폐를 실물 화폐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주소와 환전받을 금융계좌와의 연결이 필요하므로 이를 범죄 수사에서 사용자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둘째, 암호화폐는 P2P방식으로 작동되며 거래를 매개하는 중앙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커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국경의 개념을 초월하므로 지급에 큰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셋째, 암호화폐는 주소와 비밀키를 생성할 때 해시함수를 사용하고 지급 증명은 중앙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오직 비밀키의 소유여부만 확인하는 등 암호기술을 사용하므로 안전하다.

### 다크웹 관련 범죄동향 및 대응방안

2010년 일본 도쿄에 ‘마운트곡스’라는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설립되면서 암호화폐가 현실의 통화로 환전될 수 있음이 확실해지자, 곧바로 범죄자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마약 및 총기 거래 사이트로 알려진 ‘실크로드(Silk Road)’는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사이버 금제품을 유통시킨 세계 최대 다크웹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실크로드는 2011년 토어 네트워크에 만들어져 2013년까지 2년간 운영을 통해 1.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이후 2013년 미국연방수사국(FBI)에 의해 폐쇄되었다. 2017년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이 검거한 세계 최대의 다크웹 ‘알파베이(Alpha Bay)’ 사건에서 이더리움과 모네로까지 활용된 것이 확인되면서 다크넷에서 이용되는 암호화폐 종류까지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다크웹에서 마약 등을 거래한 매수자들이 다수 검거되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경찰청이 공조하여 다크웹을 이용하여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국내 운영자 및 구매자를 검거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토어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크웹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사이버상 총기·마약 등 금제품 유통에 활용되었고, 국내의 경우에도 다크웹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크웹과 같은 은닉 네트워크에 기반한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토어 네트워크에 기반한 다크넷은 접속 속도가 일반 표면웹에 비해 현저히 느린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 모니터링 및 첩보활동이 사실상 곤란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부처 사업의 형태로 ‘다크넷 스캐닝 기술 기반의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캐닝 기술 개발이 완료될 경우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첩보활동에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크웹의 지불수단으로 암호화폐가 이용되고 있으므로 범죄 행위자 추적을 위한 암호화폐 분석·추적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경찰청에서 이용 중인 암호화폐 분석시스템인 블록체인 분석 시스템은 범죄에 이용된 암호화폐 주소를 입력하면 암호화폐의 거래 흐름을 분석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다만, 비트코인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범죄에 주로 이용되는 기타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범죄자 추적기능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 맺으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크웹은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성을 띄지 않는다. 다만 유통 정보의 성격상 불법 정보와 금제품을 다루는 영역을 ‘다크넷’이라 분류하며 오버레이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된 웹 서비스를 ‘다크웹’이라 한다. 대표적인 다크웹으로 이용되는 토어 네트워크는 VPN 방식의 다차원 네트워크로 익명성 측면에서 사이버 범죄자들에게는 매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불법정보 및 금제품 거래에 이용되는 것이다. 다크웹의 주요 지불수단인 암호화폐는 현실의 통화로 환전이 가능하고, 익명성이 보장되어 감시에 피하기 좋고 지급에도 큰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는 이점 때문에 다크웹에서 지불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실크로드’와 ‘알파베이’ 등의 해외 다크넷 사례를 통해 마약·총기거래, 불법정보유통, 자금세탁 등 관련 범죄의 심각성이 충분히 알려졌으며, 국내 또한 다크웹을 이용하여 마약을 거래하거나 아동음란물을 거래하는 등 다크넷 이용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크넷 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크웹 모니터링 기술과 지불수단으로 이용되는 암호화폐 분석기법 개발 등 범정부차원의 기술적 대응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PSI

## 중국의 유엔평화유지경찰 참여

서울청 강북경찰서 행정관 박대희



### 들어가며

중국은 ‘신형 국제관계 건설’과 ‘인류운명 공동체 구축’을 외교정책 목표로 두고 세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자주의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는데, 유엔 업무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 유사한 시기인 1990년대에 평화유지군의 형태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경찰의 참여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이 갖는 국제적 지위와 위상에 비추어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들어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유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본고는 필자가 중국과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해 연구하던 중 중국 경찰의 활발한 참여가 주목돼 모아둔 자료들을 재정리한 것이다.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한국 경찰보다 앞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 중국 경찰에 관한 자료가 우리 경찰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길 바란다.

### 중국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현황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위원 국가 중 최대 파견국이자 두 번째 출자국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990년 유엔 중동평화유지 임무에 군사감시원 5명을 최초 파견한 이래 지금까지 24개의 임무에 3.7만 여명을 파견했다. 2018년 5월 현재 2,507명이 7개 지역에서 임무 수행 중으로 13개 평화유지분대 2,419명, 군사감시원 및 참모장교 88명이 활동하고 있다. 2017년 9월 22일부로 8,000여명 규모의 평화유지상비부대(維和待命部隊)와 2기 규모의 평화유지상비경찰대(常備維和警隊)에 대한 유엔 등록을 마친 상태다. 중국 평화유지상비부대는 6개 보병대대, 3개 공병중대, 2개 수송중대, 4개 2급병원, 4개 경비중대, 3개 신속반응중대, 2개 중형다용도헬기분대, 2개 수송기분대, 1개 무인기분대, 1개 수면함정분대

등 총 10개 유형의 전문역량 28개 분대로 구성돼 있다.

중국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의 특징 중 하나는 경찰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2001년 1월 처음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경찰을 파견하기 시작해 2017년까지 동티모르, 아프간, 보스니아·코소보, 라이베리아·수단, 아이티 등지에서 임무 수행 중이다. 중국 경찰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는 일반 경찰과 평화유지경찰방폭대(防暴隊 : 테러방지대)로 구분된다. 방폭대는 평화유지경찰의 특수 역량으로 평화유지군과 경찰의 중간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우수한 기동력과 무장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 평화유지경찰 총 경감의 지휘를 받는다. 방폭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평화유지경찰 및 현지 경찰의 법집행 업무 협조 및 지원
- 소요, 집단 분쟁 등 충돌 사건 처리
- 주요 공공행사 시 현장 경비
- 인질 및 항공기 납치, 폭발물 위협 등 중대 악성 사건 처리
- 현지 경찰방폭대 조직 및 훈련 지원

보통 방폭대는 분대 또는 소대 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뛰어난 비상작전 능력과 자기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 2004년 10월 유엔 아이티 임무에 파견된 중국 평화유지경찰방폭대는 125명의 완전한 편제를 갖춰 파견됐으며, 유엔 평화유지활동부 경무관 직위에도 고위 경찰 2명을 파견한 바 있다.

### 중국 평화유지경찰 업무 지휘 및 관리체계

#### ○ 조직지휘

중국 평화유지경찰 업무 총괄 책임은公安부에 있다.公安部 예하 평화유지경찰지휘부에서 평화유지경찰에 대한 중요 정책을 심사, 결정하며, 예하 ‘국제협력국(國際協力局)’에서 평화유지경찰 업무와 관련한 정책 연구, 규정 제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 전국 단위 평화유지경찰 선발요건 및 모집계획 수립, 양성훈련 및 유엔 선발평가 전 집체훈련 등의 업무를 지도한다. 선발된 경찰을 파견 및 관리하고 유엔 및 유관 국가, 국제조직과 교류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평화유지경찰에 관한 언론 보도 및 공보 관련

업무 역시 국제협력국이 주관한다.

<그림 1> 중국평화유지경찰 조직도



2001년 4월 중국 공안부는 평화유지경찰 양성을 위해 인민무장경찰부대 소속 교육원에 평화유지 훈련 부서인 '중국평화유지경찰훈련센터(中國維和警察培訓中心)'를 개소, 평화유지경찰에 대한 선발 및 훈련을 담당하도록 했다. 동 센터는 베이징 인근 도시 랑팡(河北省 廊坊市)에 위치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평화유지훈련장이다. 중국 정부가 건축 면적 17,000㎡에 1.5억 위엔(元)을 투자해 교육구(20여개 전공 강의실 포함), 표준운동장, 운전연습장, 사격장, 수영장 및 식당, 오락센터 등을 건설해 교육과 훈련, 생활이 일체된 종합적 성격의 훈련장을 갖췄다. 2008년 12월 이곳에 방폭대 종합훈련장, 임무지역 거리 모형 등을 추가 신설해 300명을 동시에 훈련시킬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갖추게 됐다.

○ 선발 및 양성훈련

중국 경찰이 유엔 평화유지경찰 신분으로 임무지역에 파견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평화유지경찰훈련센터에 입소해 평화유지경찰 양성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센터 입소자 선발 권한은 중국 공안부에 있으며 '공정·평등·경쟁·우수 인력 선발'을 원칙으로 개인신청 - 조직추천 - 선발시험의 순서에 따라 선발된다. 아래의 조건을 갖춘 개인은 조직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① 양호한 사상 및 품행을 갖춘 자
- ② 25세 이상으로 경찰 업무 5년 이상인 자

- ③ 경찰 업무와 유관 법률 및 법규에 익숙한 자
  - ④ 신체 건강하고 3급 갑등(甲等) 병원 신체검사 합격자  
\* 3급 갑등 병원 : 500병상 이상 규모, 높은 의료설비와 정보화시스템을 갖춘 병원
  - ⑤ 심리상태 양호한 자
  - ⑥ 유엔 유관 규정이 요구하는 기타 조건을 갖춘 자
- 중국 평화유지경찰훈련센터 훈련반은 기수당 30명을 정원으로 운영되는데 훈련 입소자는 3개월 동안 밀봉식 교육을 받는다. 교육 과목은 크게 전공기초, 전공, 기능, 강좌 등 네 가지 영역으로 영어회화 및 시청, 평화유지업무, 보고서 작성, 통신 및 연락, 치안업무 기술, 차량 운전, 무기운용 및 사격, 군사지형, 임무지역 개황, 국제정세, 외교통례, 인권, 응급처치, 심리건강 및 위생방역 등 20여개의 과목과 강연으로 구성돼 있다. 양성훈련을 통해 교육생은 유엔 및 평화유지업무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평화유지경찰의 업무를 익힌다.

평화유지경찰방폭대 양성훈련은 기수당 125명을 정원으로 4개월 간 이뤄진다. 이들은 평화유지경찰훈련센터에서 일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대 간부 중 한 명을 훈련반 임시 당총서기로 임명해 방폭대 내부관리 책임을 맡긴다. 방폭대 양성훈련반 과정에서는 방폭조직지휘, 방폭기술, 방폭전술, 방폭대관리 및 지원, 평화유지업무, 평화유지 관련 영어, 임무지역 개황, 외교관련 교육 및 사상정치 업무 등 9개 전문 과제를 포함해 총 40여개의 과목을 학습한다.

○ 평가

이렇게 양성훈련을 마친 인원들은 센터가 주관하는 수료 평가를 치르게 된다. 평화유지와 관련한 구술, 독해, 듣기, 작문과 유엔표본 양성훈련, 통신, 운전, 사격 등의 각 과목에서 합격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인원에게 수료증을 발부하며 동시에 유엔 심사선발 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유엔 심사선발 평가를 앞두고 센터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유엔의 평가 형식과 내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1~2주 간 집중훈련을 실시한다. 유엔 고사관 2~3명이 중국 훈련센터에 직접 파견돼 심사를 돕는데, 심사선발은 공안부가 주관하며 평가 문제 출제 및 채점은 유엔 고사관이 맡는다. 유엔 심사선발 평가는 언어(독해, 듣기, 보고서 작성, 구술 등) - 운전(기본 조작, 도로실기 등) - 사격(총기 분해결합, 5/7m속사 등) 순으로 3개 분야 9개 과목에 대해 진행된다. 평가는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한 과목이라도 불합

격할 경우 다음 과목에 응시할 수 없다.

유엔 평화유지경찰방폭대 심사선발 평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중국 평화유지경찰방폭대는 유엔의 요청과 업무 필요에 따라 125명으로 편제하며 영어 또는 프랑스어 능통자를 최소 21명 포함해야 한다. 방폭대 대장, 부대장, 분대장, 연락관, 보급관, 당직관 및 소대 통역 인원은 영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갖춰야한다. 기타 방폭대원은 유엔 평화유지경찰 심사선발 평가 표준에 따라 고도의 전문기술과 신체조건, 간단한 영어회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유엔의 심사 중점과 임무지역 실제 업무 수요에 따라 중국이 5~7개의 종합실기과목을 준비하면 유엔 선발 고사관이 평가를 맡아 방폭대의 신체조건, 심리상태, 전술 수준 및 전반적인 작전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양성훈련을 마치고 유엔 선발평가에 합격한 인원은 비로소 평화유지경찰이 될 자격을 얻게되며 공안부가 지정한 시기에 파견된다.

○ 파견관리

대체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해 임무지역에서 훌륭히 평화유지경찰임무를 수행했던 경찰은 평화유지경찰특별모집시스템에 자동 등록돼 공안부의 필요에 따라 재 파견될 수 있다. 임무지역 경찰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공안부 평화유지경찰지휘부는 <維和警察任務區管理實施細則(유화경찰임무구관리실시세칙)>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임무구역의 중국 경찰은 임시 당 지부를 조직해 공안부 국제협력국 당위원회 지도를 받아 경찰대대장, 부대장 그리고 임시 당지부원을 선발하고 우수한 인원을 경찰대 지휘자로 임명한다.

임시 당 지부 서기는 경찰대대장을 겸직해 경찰대의 주요 책임자로서 경찰대 관리를 겸한다. 임시 당 지부는 당 소조를 조직해 조장을 1명씩 선출한다. 평화유지임무 종료 전까지 임시 당 지부는 평화유지경찰의 핵심 업무를 맡는다. 평화유지경찰에 대한 평정 작성 후 동의 및 서명을 받아 지휘부에 신청, 소속 공안부에 보고한다. 성적이 우수하고 표창 조건에 부합하는 경찰은 소속 공안대로 건의해 표창하며, 기율 위반 혹은 자질 불량한 경찰은 공안부 국제협력국 당위원회에 보고해 처벌 및 국내 소환한다.

○ 교류협력

중국은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국제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중국 평화유지경찰의 업무 역량 확대를

위해 수차례 뉴욕을 방문해 관련 정보를 수집,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유엔 전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등을 중국에 초청한 바 있으며, 영국·스위스·프랑스 등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인원 교류 혹은 평화유지 연구토론회 및 훈련반 등을 개최해 평화유지경찰 양성훈련 업무와 관련해 수시로 인원, 정보, 자료를 교환하고 있다. 동티모르, 아이티 등 임무지역에 실사단을 수차례 파견해 해당 임무 지역의 유엔 고위관료와 접촉, 당사국의 중국 평화유지경찰 임무에 대한 지지를 얻고자 노력한 바 있다.

**중국 경찰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의의**

○ 외교 전략상 필요성 충족

중국은 경찰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가 세계평화와 안보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부합하는 구체적 활동의 이행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공안 외 사업무는 과거 “오는 손님은 맞이하고 가는 손님은 잘 보낸다(迎來送往)”는 식의 단순하고 피동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유소작위(有所作爲)”의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형태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중국 평화유지경찰 업무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 경찰의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국제치안업무 협조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중국이 국제체제로의 참여 결실, 의지 및 능력을 외부세계에 보여주었다. 관련 학회에 참석해 각기 다른 국제관계 행위체와 협상하고 협력하며 상호 적응하는 방식과 전략을 모색하는 등 다자외교를 추진할 수 있었다. 집단안보체제의 대표 기구인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중국의 정책기조인 “조화세계(調和世界)” 이념에 부합하는 외교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 외교력 향상 및 외교수단으로의 활용

경제의 세계화, 교통 및 통신 기술의 발달, 국제관계의 민주화, 신문매체로의 참여는 현대 외교의 의미와 형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문화, 체육, 과학 기술 등 새로운 외교수단의 형성으로 외교의 범위와 행위주체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 활동이 주권국가의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외교활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외교정책은 개혁개방 이래 경제건설을 목표로 조정과 발전을 거듭하며 부단히 학습을 지속했다.

80년대 이후 중국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으며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참여가 그 구체적인 실천수단이 됐다.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아이티는 중국이 대규모 평화유지경찰을 파견한 나라다. 동티모르가 중국이 최초로 평화유지경찰을 파견한 나라이름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동티모르에는 중국 외교대표부가 없던 상황으로 평화유지경찰이 외교대표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중국은 동티모르와 외교 관계가 없었던 반면 타이완은 동티모르와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유지경찰이 동티모르에서 중국의 입지를 굳히고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을 고립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 동티모르 개국 행사 당일 중국 평화유지경찰은 행사 간 혼잡한 상황에서 행사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동티모르와의 외교협약에 가장 먼저 서명을 받은 일은 평화유지경찰이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낸 사례로 남았다. 라이베리아는 열악한 생활여건과 업무 환경으로 중국 평화유지경찰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곳이다. 중국 평화유지경찰은 라이베리아 임무에서 현지 경찰의 양성훈련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후 라이베리아는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아이티는 중국의 대규모 평화유지경찰방폭대가 파견된 곳이다. 현지 안정화와 치안질서 조성을 지원한 중국 평화유지경찰은 이후 아이티와 중국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기초를 마련했다.

#### ○ 국가이미지 등 국가 연성력(soft power) 상승

과거 외국의 학자들은 중국을 ‘유엔의 기권파’라 칭하며 중국의 국제업무 참여의 수동적 행태를 비판했다. 실제로 유엔 대표회의나 안보리회의에서 중국이 관련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특히 자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지역의 문제일 경우 더욱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중국 내부에서도 자국이 유엔에서 갖는 지위에 부합하도록 국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됐다. 조셉 나이(Joseph S. Nye Jr.)의 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의 강성력(hard power)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연성력이다.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국만의 무형의 정신력, 정치제도의 흡인력, 가치관의 감화력, 문화 전파력, 국민 이미지가 갖는 매력 등을 포함하는 연성력은 국제정치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한 전략적 가치다. 중국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가 국가 연성력을 높이는 좋은 수단으로 판단했고, 이를 통해 중국이 한층 더 개방된 자세로 세계를 향하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평화유지경찰 한명 한명은 주권 국가가 파견한 국민으로 출신 국가 이미지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이다. 중국 평화유지경찰은 임무지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며 동시에 중국문화재 개최, 경찰병영개방행사 개최, 지역주민무료점심식사 제공 등의 행사를 통해 현지 주민과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중국公安部 발전에 기여

중국 평화유지경찰의 참여는 세계 평화유지와 안정뿐만 아니라 중국公安部 자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국제법 집행력과 외사 업무 경험을 구비한 인재를 갖추게 됐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제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전문 인력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 세계 각지에서 여러 나라의 경찰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며, 각 나라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 우의를 다지면서 세계를 보는 안목을 높이는 기회를 갖게 됐다. 또한 대외업무 능력을 실전에서 검증함으로써 향후 원활한 대외 업무 추진 및 협력에 도움이 됐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公安의 능력을 재평가하는 검증의 장이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통해 쌓은 법집행 경험과 구축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2004년 초 중국 올림픽조직위원회는公安部 국제협력국에 평화유지경찰 업무 경험이 있는 경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에서 선발된 420명의 유엔 평화유지경찰 파견 경력자 중 100여명이 올림픽 기간 중 베이징 및 기타 주요 경기지역에서 외국인 조사, 출입국관리 및 심사, 외교안건처리, 대외 협조 등의 업무를 맡았다. 특히 올림픽 보안업무 중 올림픽조직위원회 보안부 관할의 국제경찰업무연락센터의 구성원은 대부분 유엔 평화유지경찰 경력자로 센터의 중요한 역량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유엔 평화유지경찰 업무는 중국 경찰의 전체적인 자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 유엔 평화유지 임무지역의 경찰부문은 주로 영국,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경찰관리제도를 취하고 있다. 수백 년에 걸쳐

발전을 거듭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들과 함께 일한 중국 경찰들은 선진화된 업무체계를 학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 학습한 바를 임무지역인 실전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중국公安部 전체 발전에 귀결된다. 이외에도 평화유지경찰로 선발되기까지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치고 임무완수 후 귀국한 평화유지경찰관이 갖게 되는 화려한 경력은 젊은 경찰간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며, 동료들에게 좋은 자극이 돼公安部 전체의 역량을 향상하는데 기여했다.

### 맺음말

중국이 이렇게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이유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중국은 대규모 훈련센터를 보유하고 유엔 선발에 앞서 자체 훈련체계(유엔교육인증 既 획득)를 갖추고 있다. 때문에 유엔 선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 할 수 있으며 유엔이 필요로 할 때 언제라도 파견이 가능하다.

한국도 1990년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나 군의 참여에 비해 경찰의 참여는 미미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능력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를 배우고자 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우리 경찰전문가를 파견해 현지 경찰을 교육시키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 2017년 현재 총 19개국에 125명을 파견했다. 또 외국 경찰을 한국에 초청해 한국 치안시스템을 소개하는 17개 교육과정에 27개국 272명이 참가했다. 가히 ‘치안 한류’(治安韓流)라 할만하다. 우리 경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다. 개별국가를 상대로 전개되고 있는 치안 한류를 전 세계로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세계평화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평화를 수호하고 사랑하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 경찰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선진 국가들의 경찰 업무를 배우며 그들과 교류할 수 있다.

<표 1, 한국 경찰의 UN PKO 참여 현황>

연 도	미션명	파견인원
1994.4.~10.	소말리아 정전감시단	2명
1999.6.~9.	동티모르 선거감시단	5명
2006.12.~2012.12.	동티모르 통합미션(1~5차)	18명
2014.4.~2016.4.	라이베리아 국가재건미션(1차)	3명(여1)
2016.4.~2017.4.	라이베리아 국가재건미션(2차)	6명(여2)

2017년 6월 미국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경찰청장회의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더 많은 한국 경찰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경찰청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답하며 참여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최근 경찰대학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파견 전 핵심교안(C PTM: Core Pre-deployment Training Materials)과 유엔 경찰 특별교안(STM: Special Training Materials for UN Police)에 대한 공식 교육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인증 획득을 통해 향후 유엔 경찰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한국 경찰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PSI

# “치안리뷰” 현장의 소리 인터뷰

## 서울지방경찰청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장 경정 이 석



◎ 간단히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장 이 석입니다. 우리 지구대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일대 유흥가와 숙박업소, 보라매동과 은천동 일대 다세대 주택, 원룸, 빌라 등이 밀집해 있어 전국에서도 치안 수요가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는 올해 1월에 발령받아 당곡지구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희망대한민국 명판식을 개최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당곡지구대는 서울지방경찰청 관악경찰서 소속으로 유흥가와 숙박업소 등이 밀집되어 있어 성추행, 폭행, 취객보호, 절도, 무전취식, 데이트 폭력 등 112신고 다발지역으로 KBS ‘다큐 3일’, EBS ‘사선에서’ 등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2018년 1월 말에 당곡지구대로 발령받고 와서 보니 직원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업무처리를 잘하는 반면에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곡지구대는 현재 구청건물을 빌려 사용하고 있으며 2층까지는 지구대가 사용하고 3층은 구청에서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7년에 지어져 40여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이어서 휴게 공간과 식당 등이 좁고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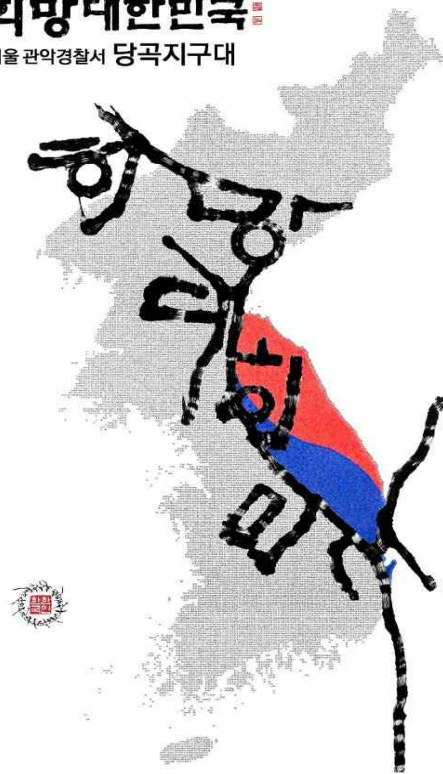


이에 우리 직원들에게 비록 환경은 열악하지만 치안은 최고이며 경찰이 있기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자긍심을 복돋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당곡지구대 직원들을 비롯해 전국의 모든 경찰관들이 ‘경찰이 국민의 희망’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희망대한민국” 인증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희망대한민국’ 작품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희망대한민국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희망대한민국(원작: 세로 4.5m, 가로 7m) 인증명판은 투명아크릴판으로 가로 70cm, 세로 1m, 두께 2.5cm 크기로 제작했습니다. 작품 제작에는 4년여 가량 소요되었고 역사상 최초로 ‘제헌 헌법 전문(全文), 한글의 우수성과 역사성, 희망의 시’를 대필(大筆)과 세필(細筆)의 붓글씨로 한글 수 만자를 슬좌 작업으로 완성했습니다.

작품에 담긴 희망의 '1'(이)자는 이순신 장군이 선봉에서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모습을 형상화 하였으며, 남북 지역명이 통일되어 있는 강원도의 태극문양은 '강원도에서 통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뜻으로 인주(印朱)에 수만번 손도장을 찍어 태극문양을 표현했습니다.

아울러 '국'자의 받침 'ㄱ'(기역)자는 한반도의 지도가 호랑이의 형상을 닮고 있지만 꼬리(포항 호미곶)가 짧아 이를 보강하고자 더 키우고 세워 세계를 향한 한반도의 왕성한 힘과 기상을 상징합니다. 작품의 맨 아래쪽 긴 꼬리는 한반도의 긴 역사와 뿌리를 상징하여 수만 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뻗어나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국회헌정 기념관에 원형백자로 제작되어 영구 소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 주최로 국회마당에 최초로 설치·전시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KT광화문 사옥에 최장기간 전시된 적 있는 유명 작품입니다.

◎ 지구대에 작품을 설치하여 나타는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구대에 들어서면 정면에 '희망대한민국' 지도가 보이기 때문에 사뭇 마음가짐이 새로워집니다. 민원인, 기자, 자율방범대원 등 많은 사람들이 지구대에 왜 대한민국 지도가 걸려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경찰이 국민의 희망입니다'라며 작품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드리면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경찰이 있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경찰이 국민의 희망임을 되새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경찰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희망대한민국 작품 설치에 대한 대장님의 느낌과 주위 반응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경찰관서에는 태극기와 경찰현장이 걸려 있는데 희망 대한민국 지도가 걸려 있어 매우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한한국(韓韓國) 세계 평화작가께서 고생하시는 전국의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하기 위해 직접 작품을 기증하셔서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아울러 작품 속에 새겨진 한 글자 한 글자에서 작가의 장인정신이 느껴져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폴넛 핫이슈 코너에 작품, 행사 사진과 작품설명, 자체 제작한 경찰 홍보 영상물 등을 게재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셨습니다. 경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며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들에게는 더욱 친절하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곡지구대 직원들 또한 희망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서 "당곡지구대에서 근무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당곡지구대가 희망대한민국 인증을 받았네요,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국민보호에 당곡지구대가 계속 질주할 것입니다"라는 등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 향후 희망대한민국 명판 활용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관공서, 협력단체와 주민들에게도 홍보하여 당곡지구대의 상징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인증 샷을 찍으려는 분들이 가끔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이 국민의 희망임을 알리고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당곡지구대가 되고 싶습니다. 희망대한민국 작품이 가지는 상징성에 비추어 볼 때 지구대보다는 경찰청 주관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전국의 경찰관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일선 지구대에서 인증식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비록 저희 지구대에만 작품이 걸려있지만 그 마음은 전국의 모든 경찰관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작품 속의 한반도를 바라보면 통일의 염원을 떠올리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 경찰이 함께 하고 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 일선 경찰관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작품 속의 이순신 장군은 대한민국을 외세로부터 수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도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경찰관은 범인의 칼에 찔리기도 하고, 교통단속 중 사상을 당하며, 과로사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며, 뜬눈으로 밤을 새면서 주취자와 씨름하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접하게 되는 위험의 순간에 주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안전도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경찰활동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PSI](#)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쏠 직원들>



*Total Solutions in Policing*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